

자동차 에너지절약 10가지 방법

지루한 겨울이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됨에 따라 모두들 시원하고 상쾌한 코스로 드라이브 하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된다. 많은 차량들이 산과 들, 강과 바다를 향해 질주하고 싶은 계절을 맞아 달려나올 것이다.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모든 도로는 차량의 홍수로 물결칠 것이고 이 와중에 없어지는 것은 휘발유나 경유이고 늘어나는 것은 매연 뿐이다. 휘발유나 경유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비싼 외화를 주고 해외에서 수입한 원유에서 정제된 제품이다. 자동차 에너지절약은 바로 외화를 절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절약방법 열가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5~10% 이상 차이가 나면 차량 및 운전방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해야 하며, 엔진오일은 항상 동일 제품을 사용하고 점검, 보증, 교환시에는 오일레벨 게이지의 적정범위 내로 하고 에어 크리너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는 과시품이 아닌 경제성, 엔진 성능, 안전도, 유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차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형, 중형, 대형차의 종류에 따라 연비가 10~30% 차이가 있으며 배기량이 높은 중형이나 대형차일수록 연비가 낮고 대기오염 물질도 과다하게 배출된다.

① 차계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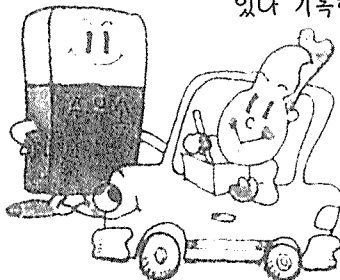
차계부라 함은 차량운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기록하여 절약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자료로 주유량과 주행거리, 운행 및 정비상태, 시내, 시외, 고속도로 주행 등 여러 운행조건에 따른 연비(km/l)를 점검하여 자기차량에 대한 주행 연비를 알아두어야 한다.

동일거리 주행시 연비가 ±

주행상태별 엔진오일 교환시기

구분	최적교환주기	사용부적합
시내주행	5,000km	7,000km
고속도로주행	8,000km	10,000km

오늘 0L 주입!
몇 키로나 달렸는지 기록할것.



③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운행 자제

급출발, 급제동은 연료의 낭비 뿐 아니라 엔진의 수명도 단축되고 타이어의 마모도 심하다. 교통정체가 심하고 신호등이 많은 시내에서 급출발, 급제동을 반복할 때 소모되는

연료는 총주행시 소모된 연료량의 50%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급출발, 급가속 10회에 손실되는 연료량은 각각 100cc, 50cc 정도이므로 가속시킬 때는 가속페달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속하는 것이 좋다. 특히 추위를 위한 가속시에는 연료가 20% 이상 더 소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속도에 따른 1회 제동시의 추가 연료소비량 차이

구분	40km/h	60km/h	80km/h
제동거리(m)	13	20	35
정속주행시 연료소모량(cc)	50	54	66
추가 연료 소모량(cc)	서서히 제동(A) 4 급 제동(B) 7	4 11	2 18
추가연료소비율(B/A)	약2배	약3배	약9배



자동차의 중량은 연료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차중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물건은 싣지 않는 것이 좋다. 10kg 정도의 짐을 싣고 50km를 주행할 때 80cc의 연료가 더 소모된다. 따라서 차중을 가볍게 하고 공기저항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장식들의 부착도 않는 것이 경제적이다.

④ 주정차시의 엔진시동

엔진공회전시 연료소비량은 차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0분간 공회전시 소비되는 연료량은 200cc 정도이므로 1~2분 이상 주정차시에는 가급적 엔진시동을 끄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교통이 수월한 지역 또는 도시의 신호 대기시간은 보통 30초 내외이므로 이때는 시동을 끄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⑤ 경제속도의 주행

주행중 급격한 속도변화는 피하고 가급적 연료소모가 적게 드는 경제속도대에서 정속주행하는 것이 좋다. 평균속도 40km/h에서 60km/h로 주행하면 연료가 10% 정도 더 소비된다. 서울에서 대전을 80km/h로 가면 100km/h로 갈 때보다 약 25분간 늦게 도착하지만, 연료는 20~30% 절약된다.

⑥ 차량속도에 맞추어 기어변속

기어변속은 차량의 속도, 도로상황, 교통량의 여건에 따라 빨리 실시하는 것이 좋다. 주행도로상에서 엔진에 무리가 없는 한 상단기어를 사용하여 주행하는 것이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⑦ 차중을 가볍게

⑧ 타이어의 적정공기압

타이어는 적정공기압을 유지하여 운행하는 것이 차량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타이어의 수명을 연장할 뿐 아니라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공기압이 과다하면 타이어에 이상마모, 무게중심의 악화 등을 초래하므로 1주일에 한번 정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공기압이 20% 정도 부족하면 연료가 약 2~3% 더 소비되며, 타이어의 수명은 약 30% 정도 감소된다.

⑨ 에어컨 가동은 꼭 필요할 때만

에어콘을 가동하면 주행속도의 변화에 따라 최대 20% 정도의 연료가 더 소비된다. 에어컨은 가급적 시속 40km/h 이상의 속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또 에어컨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되고 고장원인이 되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1주일에 5~10분정도 가동시키는 것이 좋다.

⑩ 승용차 함께 타기

홀로 이용하는 승용차의 증가는 한정된 도로 이용 효율을 저하시키고 에너지 소비 증가와 대기오염물질의 과다배출을 초래한다. 따라서 홀로 쓰는 차량의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이웃과 함께 타기를 실천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감소, 도로이용 효율을 제고하는 지름길이다. ♻️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